

сахалин주 사회정치신문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새고려신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2019년 8월 2일(금) ..(음력 7월 2일).. Пятница 2 августа 2019г. № 30(11684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지난 7월 30일(화)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대행이 만나 사할린 주의 의료개혁과 주택 및 도로 건설, 주거지의 가스화 건설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출처 : 크레믈리 홈페이지)

푸틴 대통령,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대행과 사할린주 발전에 대해 논의

지난 7월 30일(화)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대행과 만나 사할린주의 의료 개혁과 주택 및 도로 건설, 주거지의 가스화 건설을 논의했다.

6개월 만에 사할린주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점 분야에 큰 변화가 생겼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의 주관으로 지역에 의료개혁이 펼쳐졌다. 65개의 현대식 보건 대상의 건설 프로그램이 조성되고 올해 첨단의료장비 구입 예산도 몇 배나 증가했다. 이 모든 개혁의 주요 목적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수명을 늘리는 데 있다.

주민의 높은 사망률은 미비한 진단과도 연관되어 있어 조기에 중증 질환을 밝히기 위해 올해 완벽한 공중보건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보건진료소들에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검진을 진행한다. 지역에 따라 환자들의 편리를 위해 25대의 이동중합검진차가 방문한다.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은 "검진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을 진료하러 먼 곳으로 보내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동중합검진 차량이 도

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이것 없이 해결이 불가능한 지역에만 있어야 한다. 마을에 노후된 의료시설들이 있을 경우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건설을 하여 되도록이면 폐원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의 의료전문가들을 위해 의료진의 임금 인상,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부임 수당, 주택 임대와 구입 시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물질적 지원의 효과적인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이 새로운 시행 조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응급전화 <1-300>이다.

병원에서 순번표를 못 받았을 경우 또는 보건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문의할 때 이 번호를 이용한다.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실제로 우리는 주민들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할린주의 보건 분야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사람들과 신뢰가 구축되고, 전화로 접수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살릴 기술이 생겼다.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 사업이 가시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다른 방안도 논의했다. 노후주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량은 25만m²에서 50만m²로 2배나 증가하게 된다. 올 상반기 사할린과 쿠릴에서는 2018년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푸틴 대통령에게 유즈로스할린스크-오하 구간의 도로를 연방 도로로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법적으로 연방 고속도로는 다른 지역으로 통해야 하는데 사할린주는 섬 지역인지라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초 사할린 지역의 도로 개건 자금은 60%나 증가했다. 인상된 자금으로 사할린 도로의 1/3을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현재 지방도로를 순차적으로 포장하여 오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2024년까지 주내 모든 주민들에게 친환경의 깨끗한 난방원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바로 천연액화가스다. 천연액화가스 기술 및 배관기술 덕에 가장 작고도 먼 마을에까지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계획이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단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 사할린 방문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윤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정병국·김재경·이정현·정양석·이수혁·박정 위원 등)이 사할린을 방문한다. 이들의 방문 주요 목적은 사할린 한인 특별법 관련 현지의견 직접 청취 및 사할린 동포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사할린 한인문화 회관 앞 동포희생 위령탑·코르사코브 망향의 탑에 헌화하고 4일(일)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국회의원들과 주블라디보스토크한국총영사관 오성환 총영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광기동소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주, 연송어류 5000톤 어획

7월 29일현재 주 수산청의 전한 바에 따르면 성어기 초기부터 사할린과 쿠릴의 어민들은 태평양 연안에서 산업적 목적으로 연송어류 514,347톤을 어획했다. 그중 송어 2253톤, 연어 1880톤, 네희카 941톤, 키주츠가 70 톤이다. 대량의 연송어류는 주로 북부 쿠릴 수역에서, 일부는 동북 연안에 오하, 노글리키 및 포로나이스크 구역의 기업들이 연송어류를 어획했다. 올해 사할린주의 연송어류 예상 어획량은 81944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할린주, 급성 장염 바이러스 감염 사실 기록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염 110건이 접수되었다. 그중 69명(62.7%)이 17세 이하로 16명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구역들에서는 10명 미만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지난주에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사실 25건이 기록되었는데 이중 12명이 유아들이며 그중 14세 미만의 아동 1명이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판명되었다.

야쿠치야 북방소수민족원주민 극장,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에서 공연

올해 극장의 해외 국제 원주민 언어의 해를 맞아 그 일환으로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는 사하 공화국(야쿠치야)의 북방소수민족원주민 국립극장의 순회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구역에서 8월6일-8일까지 공연하는데 비야흐투 마을에서는 8월 7일 14시 북방소수민족원주민 극단의 공연이 조성되고, 8월 8일 18시에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중앙구역 문화회관에서 연극 <흰 암늪대야, 밤에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나?>란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며 사는 이 세르게이와 최 율리야 부부

오늘 독자들에게 이 세르게이와 최 율리야 부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젊은이들은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는 낯이 익은 분들이고 예쁜 두 딸의 부모다. 이들의 착한 삶이 참 보기 좋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을 사로잡은 율리야

필자는 최 율리야를 몇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한국 노래를 잘 부르는 처녀였다. 2013-2015년 당시 율리야는 한 여행사 직원을 하면서 한인문화센터 소속 <소나타>보컬 앙상블의 가수였다. 또한 여러 노래 콩쿠르에서도 대상과 최우수상 등, 수상도 적지 않다. 개인 사정으로 지금 가수로서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데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행사 때 주현미의 <사할린> 노래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을 때 율리야는 흔쾌히 승낙했다.

율리야가 어릴 때부터 음악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위알렉산드롭스크에서 살며 이 지역 문화관에서 러시아 노래를 배웠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음악의 기초를 가르치는 것 보다 그저 노래 가사를 익히는 것 뿐이었다. 러시아 민속합창단에 동포 친구들과 다녔는데 한인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 러시아 민요를 불렀다. 무대에서 러시아 민요를 부르는 것이 즐거웠다고 한다.

그때는 한국 노래를 즐겨 들었을 뿐이었다. 당시 부모님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다녔었는데 다녀올 때 마다 많은 음반을 사다주었다고 한다. 그때 조금씩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의 추천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하바롭스크에 있는 태평양대학교 환경설계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의 3년 반 공부하다가 포기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서라고 한다. 부모님에게 한국어 전공에 대한 꿈을 다시 털어 놓자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도전해봐라."며 딸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고 한다.

사할린 국립대 동양학대학에서 (한영과 전공)에서 공부를 하게 된 율리야는

학기 도중에 편입했기 때문에 과외선생님까지 구해서 동창들을 따라가려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 관련 여행사에 취직하고 취미생활(노래와 음악)을 마음껏 누렸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딸 아이들을 키우는 데 몰두했다. 그렇지만 딸들을 돌본 것만 아니라 가끔 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올케(오빠의 아내)와 함께 동업을 시작했는데 전통 돌 잔치상과 회갑 잔치상을 장식하고 차리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올케와 같은 해 첫째 딸을 낳고 가족이 자신의 첫 딸 돌잔치를 준비하는 중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딸들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이런 잔치를 원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뜻깊고 유쾌한 잔치를 베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영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사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저 입소문으로만 주문을 받고 있고 했다. 한 달에 1-2개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동업자들이 아직 사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음직한 젊은이 세르게이

필자는 처음 이 세르게이가 대학생이었을 때 봤다. 재외동포재단 장학금을 받은 그는 사할린국립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다. 사실은 일어를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친구의 권유로 한국어과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어과를 선택하기 전에 사할린 한국교육원에서 약 2개월간 한국어를 배워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렸을 때 가정적 사정으로 우글레고르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지 여러 학교를 전학하면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어서 학교에서는 딱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교수, 인나 코르네예와 교수의 조언과 협력으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다며 세르게이는 이 대학의 교수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을 갖고 있다고 했다. 사할린국립대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서 1년간 한국어 교육을 받은 세르게이는 "한국어는 쉬운 언어가 아니다. 항상 노력이 필요한 언어다."라고 한다. 그는 한국어와 관련해 여러 회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 한때 한국의 한 업체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다. 현재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가 담당하는 지역이 코르사코브, 홉스크, 일부 유즈노사할린스크 지역이다.

그는 한국어와 한인 사회와의 관련이 깊다. 작년부터 사할린주 한인협회 청년부에서 부책임자로 활동한 그는 금년 봄부터 주요 책임을 맡았다. 청년부는 자원 봉사도 하고 특히 주 한인협회가 추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한국에서 대표단들이 찾아왔을 때 자선행사를 같이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도 개최했고, 해마다 여는 청소년 역사캠프도 올해 맡기로 했다. 물론 광복절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18세부터 민태출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운 세르게이는 요즘은 한민족 씨름에 빠졌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연습한다고 했다. 지난 27일은 주 한인협회에서 청년 담당자에게 한국 진로사업으로 1세 어르신들의 인술을 맡겼다.

한국어를 잘 하니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열심히 키우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르게이는 친구들을 모아 청년부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얼마 전에 율리야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고려인 청년대회에 참가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들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세르게이와 율리야는 서로 문제를 의논하고 의지하는 부부다. 율리야는 세르게이가 아파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이 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했다. 세르게이는 "아이들에게 그저 성경에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큰 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보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요."

율리야와 세르게이가 결혼한 지는 5년이 지났다. 결혼 전 사린 지도 4-5년이다. 가가린공원 스케이트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들은 서로 첫 눈에 반했다고 한다.

사할린국립대에 편입하려고 사할린에 돌아온 율리야는 세르게이가 이 대학 한국어과에서 공부하는 것에 좀 놀랐다고 했다. 게다가 그녀에게 어렸을때 태권도를 가르친 사범이 그 당시 세르게이의 트레이너인 것도 신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둘 다 교인들이었던 것도 그랬었다고 한다. 다른 교회였지만 결혼 후 노위알렉산드롭스크 교회에 다니던 율리야는 남편을 따라 루고워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바람직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젊은 가정의 아름다움. 항상 응원하고 싶고 가족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고 싶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 여성이 연방 청년 사무국의 장려금 획득

사할린의 여성 로자 마나호와가 연방 청년 사무국이 주최한 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발대회에서 우승했다. 우승자 로자 마나호와는 일본, 중국, 한국의 무용지도자들과 극동지역의 사람들을 기획을 통해 결속시킬 국제 댄스축제 'I Wanna Dance.(나는 춤추고 싶다)' 기획을 작성해 발표했다.

로자 마나호와는 <타브리다 5.0>포럼 10번째 부문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심사위원들이 경연대회 발표자들 중 로자 마나호와의 기획을 우수 기획으로 인정하여 우승한 가운데 1백만 루블리의 장려금을 수여했다. 이후 이 장려금으로 축제를 조직, 진행하게 된다. 로자 마나호와는 가을에 이 기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내 대부분의 무용인들은 고가의 항공 이용료 때문에 최고의 강사가 진행되는 실습교육에 자주 오고갈 수 없다. 이런 연유로 사할린의 춤 문화는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자 마나호와는 "이 기획에 무용 강사와 학생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무용학교와 일류 무용교실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획은 사할린 청년 지원 사무국의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 기관의 각 전문가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축제 조직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Сахалинка выиграла грант Росмолодежи

Ж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а победила в грантовом конкурсе инициатив,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Росмолодежи. Роза Манахова разработала проек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танцев I Wanna Dance, который по задумке объедини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и наставников из Японии, КНР и Кореи. Идею она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десятой смене форума «Таврида 5.0».

Проект сахалинки жюри признало лучшим из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конкурс. Роза Манахова выиграла грант на сумму 1 миллион рублей. Эти деньги пойдут на организацию фестиваля. Девушка планирует заняться вопросом осенью. Большинство танцоров области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билеты не могу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часто летать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у топовых педагогов. Из-за этого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Сахалина развивается куда медленнее, чем хотелось бы.

— Будут привлечены топовые студии и школы танце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х педагоги и ученики. Так же мы не сможем обойтись без поддержки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иалисты ведомства всячески нас поддерживают и готовы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фестиваля, — рассказала Роза Манахова.

한국 여성이 실수로 파쇄기에 돈을 넣다

한국의 한 여성이 실수로 지폐 여러 장을 파쇄기에 넣어 분쇄했다.(파쇄기는 종이를 아주 얇게 찢거나 작은 조각으로 쪼개는 기구이다.) 그러나 가까스로 복원해 은행에서 돈을 교환 받을 수 있었다고 정보 포털 Asia One에 보도되었다.

이 여성은 사무실에서 실수로 파쇄기에 5만 원권 지폐가 11장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 실수를 깨닫기도 전에 파쇄기가 지폐를 갈기갈기 찢었다.

절망한 이 여성은 인터넷에 도움을 구했고, 은행은 최소 원지폐의 80%이하 손상된 지폐만 교환을 해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한 달 동안 이 여성은 모든 시간이 날 때마다 지폐를 복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과 딸도 그 일을 도왔다.

그리고 은행은 그녀가 조각들을 모아 붙인 지폐를 새 지폐로 교환해 주었고 그녀의 끈기에 감동한 직장상사도 격려차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지게 되었고, 누리꾼들은 이 여성의 결단력과 끈기에 감탄했다. 한 누리꾼은 "파쇄기에 갈아버린 지폐를 다 맞출 수 있었다니, 이 여자는 경찰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존경스럽다!"라고 말했다.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й Кореи случайно измельчила деньги в «шредере»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шибке измельчила несколько банкнот в шредере (шредер — аппарат для измельчения бумаги в очень мелкие полоски или крошечные кусочки), однако сумела их восстановить и заменить в бан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Asia One.

Женщина случайно положила конверт, в котором было 11 банкнот по 50 тысяч корейских вон в офисный шредер. Прежде, чем она осознала свою ошибку, устройство измельчило купюры. Отчаявшаяся кореянка попросила о помощ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нтернета.

(8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3위 수상작

엄마의 삶

박정순

(전호의 계속)

저녁에는 공장이 일하는 걸 안 보이게 하려고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버렸지. 폭파할 때 정말 무서웠어. 비행기들이 웅-웅 날라다니면서 폭탄도 던지고, 난리 났었어! 그럴 때는 일하다가 기계, 전기 다 끄고, 캄캄한 데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어."

공장에서 일하는 계약 기간인 삼 년이 지나자 엄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사춘기에 엄마는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아무리 작아도 엄마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일에도 장점을 보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어머니가 되어서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나의 어린 시절, 사할린의 시장에 가면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다. 한국에 온 듯한 판매자들은 다 한국인들이고, 여기저기 한국말이 들리며, 이른 새벽에 거둔 싱싱하고 시퍼런 채소, 토마토, 양배추 등을 예쁘게 몇 줄로 길게 전시해 놓았다. 어떤 때는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온 엄마들이 장보러 오는 아줌마들보다 더 많았다. 시장에서 우종일 있다가 물건을 남으면 엄마는 "아이구, 괜찮아! 먹을 거리를 파는 게 다행이지만, 못 팔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좋지! 버릴 것도 없잖아..." 사할린 땅에 남겨진 엄마와 아버지에게 친척은 없었다. "엄마, 그렇게 많은 우리 형제들 어떻게 다 키우셨어요? 우리는 엄마 말도 잘 안들었지요?"

"아니다! 너희들끼리 잘 놀고, 잘 컸어. 저들끼리 알아서 다 하더라."

"집일, 밭일, 그 많은 일을 대부분 혼자서 하느라 엄마, 어려우셨지요?"

"다 할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니, 다 할 수 있었어, 안 어려웠어, 자기 힘대로 일했는데!..." 이렇게 여러 어려움에도 긍정을 보여주는 엄마는 우리에게 삶의 힘과 희망을 심어 주셨다. 세월이 지나고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하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다. 명절이나 휴가 때 엄마를 만나러 갈 때면 언제나 우리가 먹고 자란 건강밥상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어느새 부모님께서 조국을 떠나오신 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났다. 그동안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다. 18세에 친정집을 떠나서 힘든 세월을 보내시고 72세의 노인이 된 엄마에게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자식들을 사할린에 놔두고 한국으로 귀국해 혼자 가서 산다는 결심은 보통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되며, 자식들의 삶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신 듯하다.

자식들의 생각은 달랐다. 매일 눈에 띄는 텃밭을 보며 나이드신 엄마는 습관대로 아침과 낮으로 꾸물거리며, 음식 장만하랴, 채소 팔러 다니랴... 분주한 엄마의 일상을 보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책감이 느껴졌었다. 러시아에는 '페레스트로이카' 구조조정으로 경제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자식들은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지경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새로운 인생을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72세이셨던 엄마는 마침내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귀국해서 한 마을에서 지내며 사시게 되었다. 어쩌다 휴가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 한국으로 가면 영주귀국을 하신 부모님들은 선물들을 한 짐 준비해 놓은 걸 보게 된다. 그리고 이별할 때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 주셨었다.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된 엄마는 이별로 외로워하며 텅 비워져가는 마음을 물건 하나 하나 고르시며 채우려고 하셨던 것 같았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어느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다. 엄마의 연세는 87세가 되셨다. 둘째 딸이 휴가를 맞아 엄마를 다시 뵈러 한국으로 갔다가 또 이별할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 번과 달리 참지 못해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엄마를 보자 딸은 깨달았다. "엄마는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 힘들구나! 엄마는 외롭구나! 엄마를 혼자 두면 안 된다!" 우리 자매들은 모여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의 결심은 하나였다. 우선 엄마가 홀로 계시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식구가 많은 (가족이 큰) 셋째 딸 집으로 모셔왔다. 딸들은 '와짱' 그룹을 만들어 <자매> 라고 이름을 짓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자매 다섯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우리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 심정이었다. 모두 다 따로 살아도 언제든지 서로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었다. 엄마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늘 기뻐하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나이가 많아서 약해져도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예전처럼 꼭 채워져 있는 걸 느낀다.

사정대로 한국에서 사시다가 사할린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여행하듯이 한 삼 년을 보냈다. 그리고 이년 전부터는 둘째 딸이 은퇴하자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효도하며 살고 있다. 지금 엄마는 예전처럼 빠르지도 않고, 쉽게 움직이지도 못한다. 방에서는 지팡이의 도움으로 돌아다니고 계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둘째 딸이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에서 함께 다니는 걸 마을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주위에 안면 있는 사람을 보면 엄마는 언제든지 반갑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할머니, 아이구 귀여워, 참, 얌전하요. 복 받았어요." 한다.

어렸을 때 부터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내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 엄마의 삶, 주변사람들을 평화로운 마음과 친절함으로 대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은 자식들한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

"엄마, 사랑하요! 엄마, 고마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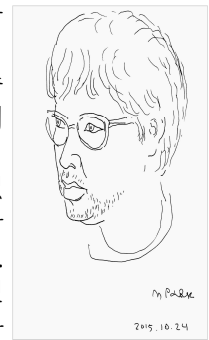
2019년 5월 6일
박정순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은어 / 권달웅

나 여기 떠나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면
청량산 굽이굽이 돌아나가는 맑은 물 되리
어머니 쪽진 비녀만한 은어가 되리
나 여기 떠나 자라난 곳으로 돌아간다면
달밤에 울 고운 안동포 짜는 어머니 바디소리 만나리
저 아득한 바다로 항해하는 수만 척의 배처럼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거슬러 올라가
가슴에 품었던 반짝이는 물 만나리
꿈처럼 이슬 머금고 핀 들꽃 만나리
나 여기 떠나 저 투명한 낙동강으로 돌아간다면
원앙이 새끼쳐나가는 저 먼 비나리 지나
명경처럼 맑은 명호천까지 거슬러 올라가
강바닥 속 은모래처럼 환히 비치는 유년의 내 얼굴 들여다보리
은어처럼 내 몸에서 나는 수박향기 맡으리

“꿈속을 거니는 것만 같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안동포 짜는 바디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없이 구불대는 마을 길로 접어들니 물 비늘을 희롱하듯 은어들이 재잘댁니다. 시인은 시선을 거둡니다. 이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겠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강바닥까지 훤히 비춰지듯 시인의 기억은 맑고 푸릅니다. 매듭지 저 역시 제 유년 시절을 떠올립니다. 뭐든 서툴렀지만 맑디 맑았던, 그 순수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려니 마음이 먹먹해 집니다. 잃어버린 건 시간이 아니라 제 추억이었나 봐요. 뜻하지 않은 선물을 건네 받은 것만 같은 늦은 밤의 황홀한 순간입니다. 권달웅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시를 제일 많이 암송한 분입니다. 이 백여 편의 시를 언제든 꺼내 낭송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막걸리를 마시러 잠실로 향하는데요. 제가 어느 시를 애기하려 들면,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일단 컷 행부터 읊조리십니다. 저야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들을 암송할 수 있을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안주를 먹는 식이지요. 노래방에서는 ‘안동 역에서’ 를 정말이지 끝내주게 부르십니다. 저야 뭐 누군가와 함께 구석에 앉아 탬버린을 잘랑잘랑 연주했던 기억이지만, 아니 얘기가 또 왜 이렇게 흘러가나요, 흠흠, 하여튼.”



서울에서 허진원.
2019.07.18.

모두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우리 함께> 마카로브 행사장을 찾아



지난 21일(토) 마카로브시 행정부 앞 광장에서 제6회 민족 간 축제 '우리 함께'가 열렸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이날 사할린 주경제개발부 알렉세이 부투하노브 차관, 마카로브 안드레이 크라스콥스키 시장,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마카로브시 의회 갈리나 무슬리모와 의장이 행사를 개막했다.

이들은 “우리는 함께”라는 축제의 주요 의미를 상기시키며 민족 간 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강조했다. 인사말을 한 주유즈노 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은 “ ‘우리 함께’ 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사할린의 각 민족 간 화합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사할린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유명한 축제가 되기” 를 기원했다.

2014년에 주 한인협회가 시작한 이 축제는 이듬해에는 마카로브 구역의 행사로, 2년 전에는 주 행사로 발전되었다. 축제는 마카로브 구역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им и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ами смогут посетител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16 августа там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билингв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На ней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9 «Чебурашка» покажут гостям умение общаться на корей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а также покажут чайные церемонии в традициях обеих стран.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форума «Образование – энергия будущего».

- Опыт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ник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создание цифровых продуктов вызывают интерес у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е тольк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централь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Билингв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у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и любителей,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город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Свои языковые навыки покажут воспитанники Валентины Ан, которая трудится в «Чебурашке» с 2011 года.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задач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Малыши и их родители могут выбрать программу по интересам. В частности, в саду проводят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и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ам.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ся билингвальные ринги.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и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и дорог, стопроцент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стали основными темами рабочей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Кремле. За полгода по этим первоочеред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метились замет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развернулась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Появ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65 современн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увеличилос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закупку перед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Главная цель все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 увеличени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ысокая смертность во многом связана со слабой диагностикой. Чтобы выявлять серьез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стопроцентную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Во всех поликлиниках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в среду и субботу. Для удобства пациентов по районам курсируют 25 передвижных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 Проследите, чтобы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была реальной, чтобы людей не гоняли на нее за тридевять земель. Моби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безусловно, помогают, но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там, где без этого невозможно обойтись. Если в каких-то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есть устаревшие сооружения, их лучше перепрофилировать, построить заново, 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закрывать заранее, -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Также Президент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ы материальног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для остров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повышение зарплаты, самые высокие в России подъемные,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покупку и аренду жиль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о еще одном нововведении – горячей линии «1-300». По этому номеру люди обращаются, если 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талон или с любым другим вопросом п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 Фактически мы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делаем большую реформу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 людей появилось доверие. Можно позвонить и попаст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техника, которая уже спасает жизни людей. То есть, это реальное дело, которое делается, и люди это видят.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 сказа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имо этого, обсуждались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Так,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объе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ырастут вдвое – с 2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о 500 тысяч.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строили на 20 процентов жилья больше, чем за этот же период в 2018-ом.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ся к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с предложением – сделать трас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федеральной. По закону федеральная дорога должна вести в другой регион, 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сят сделать исключение.

В начале этого года дорожный фонд в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ли на 60 процентов. Повышен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извано решить давнюю проблему: только треть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 имеют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Сейчас в порядок приводятся муниципальные дороги.

Еще один шаг – стопроцентная газификация региона. К 2024 году вс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топливом – трубным и сжиженным. С помощью технологии СПГ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придет даже в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и отдаленн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В Макарове провели областной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27 июля в Макарове прошёл шестой областной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Мы вместе", учреждённы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рганизованный и проведённы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их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Этот яркий праздник длился с 13 до 23 часов, программа мероприятий была красоч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началась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я Бутуха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Квак Ки Донга, мэр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ндрея Красков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дседателя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Пак Сун Ок.

После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должили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Единство традиций", концерт ансамбля "Дедюдрунанум" из Южной Кореи, концер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радиции друг друга нам не чужды"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танцев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города Макаров состоялся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ырым". На городской площади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работали торговые ряды "Сахалинской ярмарк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ыставки издели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родных умельцев, проводили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В завершение фестиваля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любовались фейерверком.

"Мы вместе" — это не просто название фестиваля. Это — девиз, шаг навстречу искренней дружбе и пониманию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айкл Помпео: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озобновятся «очень скоро»

Переговоры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озобновятся «очень скоро».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выступая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клубе в Вашингтоне,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Он также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наличие «творческих решений» для разблокирования нынешнего тупика, связанного с демонтажем программы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обмен на ослабление санкций, сравнил данную проблему с «кубиком Рубика». Говоря 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лидере Ким Чен Ыне,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он ясно увидит свой путь, поэтому мы сможем добиться светлого будущего, о котором говорил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Что касается третьей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между лидерами КНДР и США, то он пока не планирует, отметил Помпео.

Ким Чен Ын: Испытание нового такт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м милитаристам

«Испытание нового такт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стало настоящи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м милитаристам,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развёртывание передового вооруж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Об этом, как сообщило в пятницу, 26 июл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заяв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Пхеньян продолжит «разработку сверхмощ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потенциальные и прямые угрозы, которые исходят с Юга». По слов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Сеул ведёт двойную игру, демонстрируя «рукопожатие мира», а за спиной развёртывая оружие и готовясь к учениям. Ким Чен Ын потребовал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прекратить саморазруши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призвав вовремя понять опасность нынешней ситуации.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скорейш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льного настроя», имевшего место в апреле и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КНДР запустила две ракеты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которые пролетели 690 и 430 к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одна из испытанных ракет могла быть нов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разработкой.

Санкции СБ ООН ослаби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экономика КНДР сильно ослабла из-з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Банка Коре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6 июл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ВВП понизился на 4,1%. Это самый большой спад с 1997 года, когда он составлял 6,5%. При это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был отмечен рост 3,5%. После 2011 года сохранялся показатель на уровне в 1%, но в 2015 году он снизился до минус 1,1%, а в 2016 году вырос на 3,9%.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анка Кореи заявил, что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объясняется влиянием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а также низким урожа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окио отклонил предложение Сеула о проведении встречи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RCEP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торгов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Ю Мён Хи предложила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е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в рамках министер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RCEP),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3 августа в Пекине. Однако в Токио ответили отказом, объяснив это занятостью министра экономики,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Хирогисигэ Сэко. Ранее, Япония отклонила предложение РК о двусторонних контактах на полях заседан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Всемирной торг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ТО). Между тем, Ю Мён Хи заявила, что РК всегда готова к диалогу с Японией. На предстоящем мероприятии в Пекине она намерена озвучить позицию о неприемлемости ограничительных мер Японии, заручившись поддержкой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рушения части конструкции в клубе в Кванчжу пострадали 27 человек

В ночь на 27 июля в одном из клубов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обвалился антресольный этаж,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огибли два человека, 25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различной тяжести. Катастрофа произошла во время вечеринк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вод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Среди пострадавших 10 иностран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На момент инцидента в помещении находились около 400 человек. 40 из них поднялись на небольшой по площади антресольный этаж, после чего он обрушился. Полиция ведё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RKI)

Мун Чжэ Ин остался без летнего отпуска

Всего лишь пять дней планировал отдохнуть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устроив себе хотя бы короткий, но хоть какой-то отпуск. Однако дела и резко свалившаяся на Корею масса самых разных и далеко не самых приятных событий не позволили Муну отдохнуть даж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егодня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тказался от планового отдыха и продолжит работу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Интересно, что Мун при этом дал отдельное указание, чтобы его помощники не брали с него пример, а отдыхали, как планировал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первоначально Мун Чжэ Ин хотел устроить себе отпуск с 29 июля по 2 августа, съездив куда-то "развлекаться" и "отдохнуть от дел" в провинцию. Но не судьба.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тменить отпуск и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 говорится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для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журналистов СМИ. Послание подписано одним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 Сон Хва.

Причинами для такого решения стала беспокойная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Так, с начала июля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Японией началась и со временем лишь еще больше разгорается торговая война. Учитывая, что партия действующего премье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победила на выборах, то ожидается новая серия санкций со стороны Токио в отношении Сеула.

Кроме того, на днях внезапно обострение пришло оттуда, откуда не ждали. Сначала возник громки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кандал Сеула с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Корея обвинила Россию в нарушении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пролет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бомбардировщиков. РФ же в ответ назвала действия

корейских пилотов "хулиганскими". Китай поддержал позицию России и раскритиковал Корею. Затем КНДР произвела запуски нового типа ракет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заявив, что эти старты являются персональны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Сеулу, который закупает у США новые вооружения и планирует проводить с американцами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В довершение ко всему, на завершившемся 28 июля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плаванию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Кванджу произошла трагедия, когда в ночном клубе обрушился балкон,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огибли два человека и 16 получили ранения,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о восемь иностран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С учетом всего этого вороха событий, которые трудно назвать приятными, Мун Чжэ Ин решил, что в такое время он не может уходить в отпуск и должен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ься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Вместе с тем, Мун специально распорядился, чтобы его подчиненные не брали с него пример. Всем предписано не менять график отпусков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и спокойно отдыхать. Мун сообщил сотрудника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что в период с 29 июля по 2 августа он специально не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совещания с участием помощников, советников и члено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дабы чиновники могли отдохнуть как следует.

Сам Мун Чжэ Ин намерен оставаться в Сеуле и заниматься текущими делами, включая согласование кандидатур новых министров. Перестановки ожидаются в середине авгус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езидент в этом году лишил себя отпуска. Судя по заявлению, отдых не перенесен, а просто отменен. Будучи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Мун в предыдущие два года неизменно позволял себе лишь по пять дней отдыха в год.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совместно с шахматной федер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а очередное ежегод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течении двух выходных дней, 27-28 июля, по

круговой системе баталлии вели 18 спортсменов.

В итоге, абсолютное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Алик Лим, многократный чемпи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му вручены кубок победителя, золотая медаль, грамота и денежный приз. Второго результата добился Владимир

Ким Сок Кан, он улучшил свой прошлогодний третий результат. Третье место у Ха Ун Хо. Они награждены грамотами, медалями и призами. Не остались без призов и шахматисты занявшие 4, 5, 6 места И Ен Бок, О Хен Ир и Ким Виктор.

Среди ветеранов получили призы Ри Ян Чун и Хан Бон Дин.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место - Кан Максим, 2-ое место - Ким Вадим, 3-е место - Син Семен. Все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и призы, учрежденные ЮСМО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поздравил всех призеров соревнования, а остальным участникам пожелал луч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 последующих турнирах.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подобные турниры станут ежегодным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Бойкот японских товаров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ширяться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набирать обороты бойкот японских товаров, который был инициирован в ответ на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Японии.

Как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с 23 по 25 июля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80% респондентов стараются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япо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оказателем включает не только активных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присоединившихся к нем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о и пассивных участников,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х объясняются общей атмо

сферой.

15% не обращают на происхождение товара никакого внимания.

Между тем, половина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хорошо справляется с разрешением конфликта с Японией. 35%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го мнен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плюс-минус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RKI)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федеральные субсидии на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у выделят более 36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эти средства в школах оборудуют новые профильные кабинеты. Решение задач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д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субсиди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развитие трех направлений. Так,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коррекционных школ закупят в рамках направления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Это должно преобразить уроки технологии. У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появятся экологические студии, мастерски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филя, кабинеты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картонажно-переплетного дела. Первыми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лучат школы-интернаты в Долинске и Смирных.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лет новая техника станет доступна воспитанникам 6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ласт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явится и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ельских школах. Причем во всех. Учреждения оснастят по последнему слову техники – закупят новые компьютеры, 3D-принтеры, шахматные гостиные.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пробуют ученики 15 сахалинских сельских школ.

С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по Сахалину начнет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Кванториум».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для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приобретут моби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реподаватели будут приезжать даже в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и обучать детей робототехнике, авиамоделированию и промышленному дизайну.

А в рамках направления «Успех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остро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вяжут в един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еть. При этом они смогут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и технологиями.

«Цифро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реда» откроет для учащихся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Интернет. В каждой школе появится доступ в сеть со скоростью минимум 10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Еще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 созда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IT-Cube». Они появя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ронайске и Ногликах. Учреждения станут кузницей кадров в сфере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ебята будут изучать основы программирован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и,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Все проекты буд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до 2024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проект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К 137-летию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водятся концерты, караоке-битвы и другие твор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Общегородской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шестой год подряд. Как и прежде, он объединяет классическ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сценические и улич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не только знакомит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 творчески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но и является площадкой для самовыражения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горожан.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масштабный городской проект внесла коррективы капризная островная погода. Выступление рок-группы «Перекресток» должно было состояться в среду, но из-за дождя их концерт закрывал битву певцов-любителей в четверг, 25 июля.

Несмотря на пасмурное небо и холодный ветер,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Караоке-онлайн» захотели семь вокалистов. А зрителями вокальной баталии стали около 30 человек. Оценивало выступающих строгое жюри.

–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екрасны. Они не являю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и поют, как могут, но делают это очень даже хорошо.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могут все любители петь, – поделился Олег Бехтен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коллектива «Перекресток», а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 член жюри «Караоке-онлайн».

По итогам этого тура,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стала Виктория Ковалева. В качестве награды она получила не только признание зала, но и подарочный сертификат в один из магазинов цифровой техник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окальная битва завершилась, на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ую сцену вышел «Перекресток» и около часа радовал слушателей зажигательным рок-н-роллом.

Летние концерты продолжатся до середины сентября, а финальным аккордом проекта станет день города, котор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тпразднует 14 сентября. С подробным списком участников и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станцевали зумбу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С помощью телемоста «Танцуй, Москва – танцуй, Россия» островитяне откры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Номер, который сахалинцы исполни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ранслировали в столичном парке «Сокольники».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такого масштаба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Флешмоб состоялс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Здесь пенсионеры, одетые в одинаковые футболки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ритмичную музыку исполнили латиноамериканскую зумбу. До мероприятия многие островитяне не знали о таком танцева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помощь пришли фитнес-инструкторы, которые обучили их движениям джайва, ча-ча-ча, румбы и самбы.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 от 55 до 82 лет. Масштаб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длилось около часа.

– Я впервые участвую в подобной акции. Мне приятно, что та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дет не только на пользу для здоровья, но и дарит общение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Здорово, что я причастна к такому масштабному событию, – поделилась самая возрастная участница танцевального флешмоба 82-летняя Лидия Мартынова.

В акции, которую открыли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ещё 17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девять (Ижевск, Архангельск, Тамбов, Майкоп, Владимир, Ульяновск, Курск, Воронеж, Ижевск) – в формате телемоста и восемь (Волгоград, Мурманск, Благовещенск, Калининград, Рязань, Магадан, Барнаул, Чита) – в офлайн-режиме.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танцор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х Зумбу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ревысило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запус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 апреля. Сначала его участники 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посетить 7 культурных и 9 спорти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 мае к проекту подключились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ласти. Тепер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возрасте 65+ могут на выбор посещать 50 спортивных и 60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 «Сахалинскому долголетию»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уже более 4 тысяч остров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омог убрать 11 незаконных свалок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 на брифинг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С 29 мая во всех 18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запустили сайт и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Сахалин.онлайн».

–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с этого года начали формировать новую культуру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жителями. Он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открытое общение.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составляющих – новая цифровая платформ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мы повседневно сталкиваемся в своем доме, дворе,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 отмети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На портале 87 тематик разделены на 11 категорий – ЖКХ, дороги,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занятость и труд, пожар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другие. Одной из самых оживленных тем стал мусор – жители указывают на несвоевременный вывоз мусора, неправильное размещение контейнеров.

По запросу сахалинцев добавили новую тематику –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е свалки. За месяц, благодаря сообщениям жи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убрали 11 незаконных свалок, еще 3 сегодня находятся в работе.

Кроме того, в ответ на обращения в област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новые контейнеры закрытого тип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15 августа оборудуют 171 площадку, до 30 ноября – еще 204.

Как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цифровой сервис совершенствуется благодар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С июля на портале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суждать про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о вкладке «Предложения» можно высказать свое мнение о проекте велопарка на улице Горьк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Концепцию разработ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московского конструкторского бюро «Стрелка». Там очен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находок – к примеру, пешеходно-велосипедный мост, который раскинется над перекрестком Есенина и Горького. Очень ценно, что проект не просто доводится до людей как данность. Разработчики спрашивают мн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для которых и собираются делать новое место притяжения,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АНО «Наш город» Василий Вишневицкий.

Жители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голосовать за существующие концепции, но и предлагать свои идеи. В цифровом сервисе появится раздел для сбора инициатив – «Чего хочет Сахалин?».

С момента запуска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прошли 1817 пользователей,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скачали 2310 человек. Поступило более 830 сообщений, по большинству из них уже даны положительные ответы.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латформа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щает врем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 в среднем на это уходит 10 дн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ответ на официальное обращение по закону может занимать 1 месяц.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и открыли новый кабинет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Также в учреждении в два раза сократилось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приема врача. Задачу повыс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ачале года поста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Модер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стоматологии идет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Для начала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улучшили работу регистратуры. Время ожидания у обновленной регистратуры снижено до минимума. Если раньше пространство позволяло разместить 4 сотрудников, то теперь работают шестеро.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откры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абинет для оказа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с острой болью туда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Это позволило в два раза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в очереди.

С июня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к врачам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и перевели с портала «Госуслуги»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1-300». По словам исполняющ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а Ющука, с тех пор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талонов к специалистам терапевт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Если в начале года к врачам взрослого отделения на день распределяли 80-90 талонов, то теперь 160-180.

– Отложить талон стало проще. Я в первый раз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нововведением. Просто набрала номер, и мне помогли, никаких сложностей не возникло,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Юлия Колко.

Также в поликлинике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5 нов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Так, в июле помогать пациентам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клинике начал Герман Заемба.

– Сам я родо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кончил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Хабаров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там же работал в клинике стоматологом общей практики и вернулся на родной остров – рассказал врач-стоматолог.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в поликлинику еще 6 врачей.

Чтобы решить кадровый вопрос в островной медици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предусмотрело эффективные меры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ли подъемные – выплата составляет от 1,5 до 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 2019 года врачам компенсируется д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покупку квартиры и до 25 тысяч – на аренду.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нововведениям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должны начать работать 200 врачей.

Сахалинским фермерам доплатят з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С 1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величат субсидию на закупку товарного молока для переработки.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Цена вырастет в среднем на 10 процентов или 80 копеек за литр. На эти цели в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ыскали более 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текущий финансовый год.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увеличения закупочной цены на молоко был поднят 1 июля на рабочей встреч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Тог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ра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очему молоко закупается по разным ставкам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КФХ) и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 (ЛПХ).

По инициатив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еден анализ закупочных цен и действующих мер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ырого молока. Цель –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 оптимизации ценообразования на рынке сырого молока.

Анализ показал, что сегодня в рамках действующе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субсидии КФХ и ЛПХ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но общий уровень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динаков. Совокупный уровень всего объема субсидий при пересчете на литр реализованного молока, как в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так и в личных подсобных хозяйствах,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5 рублей.

На встрече фермеры также жаловались, что закупочная цена на молоко не меняется долги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принято комплексное реш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увеличивают субсидии, а переработчики – закупочную цену. Так, крупнейшие молок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решили увеличить базисные закупочные цены до 24,5-25 рублей за литр товарного моло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и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уже с сентября начнут получ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 каждый литр произведенного молок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и от переработчик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о 2,3 рубл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온종합병원, 사할린 동포 무료 검진



부산 온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함께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무역보복으로 맞서면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자' 후손인 사할린 한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다.

부산 온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과 함께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할린 동포 10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초청으로 지난 27일 부산에 도착, 보름 정도 온종합병원에서 입원해 종합건강검진 등을 받게 된다.

이들은 70대 중반에서 최대 아흔에 이른 초청 1세대 한인들로 고령인 탓에 고혈압·당뇨·어지럼증·가슴통증·다리 부종, 허리·무릎통증, 두통, 손발 저림, 하지정맥류 등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검사결과에 따라 1주일에서 최대 한 달간 체류하면서 순환기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의 수술이나 정밀 진료를 받게 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일본에 강제 징용되어 사할린에 남겨진 1세대 동포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업비 2억여원을 들여 2016년부터 4년째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의 사할린 한인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검진과 정밀진료 등 의료지원을 해 왔다.

한편 사할린 한인들은 굴곡진 대한민국의 식민지 역사를 관통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다.

1905년 우리 땅을 강제 점령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로 한국을 일본 영

토에 불법으로 병합했다. 이로 인해 일본법에 의해 강제로 일본 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노동현장에 투입된다. 특히 1944년엔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3190명의 일본 내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이중징용)됐다.

사할린주 이산가족협회 이수진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 상황'에 따르면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6년 말부터 1949년까지 소련의 통제를 받게 된 사할린에서 일본사람들만 귀환시켰고, 한인들은 고스란히 발이 묶여 조국은 물론 일본 본토로도 귀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50년대 중반 소련-일본 국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인과 혼인한 가족들은 일본으로 귀국시켰으나 끝내 순수 한인들은 사할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광복 74년을 맞아 사할린 땅에는 현재 1세대 한인 570여 명만이 외롭고 고단하고 살아가고 있다.

온종합병원은 이번 KOFIH의 건강검진사업에 초청된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등도 마련하고 있다. 8월 1일 부산시민공원 관람을 시작으로 부전시장, 태종대 등 부산관광을 할 계획이다.

사할린 동포들은 이날 저녁엔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신라시대 판타지 로맨스를 담은 '천년인연-붉은 머리 학 이야기'를 관람하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 한민족으로서 5000년의 인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28일 사할린 초청 한인 20명은 이미 10여 년 전 사할린에서 부산 정관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회' 임원 10명과 함께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와 국내 유일의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잇따라 둘러보면서 조국의 발전상과 겨레의 아픈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역사문화 탐방을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은 28일 오후 부산 이비스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2019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 연말까지 모두 30분의 사할린잔류 1세대를 초청해 건강관리를 해드릴 계획"이라며 "이번 체류기간 동안 모국의 따뜻함을 듬뿍 느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부산 뉴시스)

[우리말로 깨닫다]

오만(五萬)이라는 숫자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도 생각에 잠깁니다. 숫자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특히 큰 숫자를 의미할 때는 간절함이 담기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면 큰 숫자일까요? 보통은 백(100) 정도만 되어도 아주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화(百花)가 만발하였다는 말을 보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백이 들어가는 표현이나 고사성어도 많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백에 해당하는 고유어 '온'은 많음을 의미합니다. 종종은 전부 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갖'이라는 말은 원래 백 가지라는 뜻이었지만 거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온통이나 온 누리, 온 마을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그런 면에서 볼 때 천(1,000)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천불천탑(千佛千塔)이라는 말에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불천탑은 천 개의 부처님 상과 천 개의 탑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1,000개나 될까 하고 이 말이 과장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1000개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정성은 참으로 끝이 없는 듯합니다. 천수관음(千手觀音)이라는 말에서도 손이 천 개나 있다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천 년'을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한편 3,000이라는 숫자도 자주 등장합니다. 삼천은 불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천 리 금수강산에 삼천만의 백성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점 숫자가 커집니다. 만(10,000)은 상상 자체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사람이 만 명 모이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사람이 만 살까지 사는 것은 상상의 한계를 의미했을 겁니다. 만세(萬歲)라는 말은 그래서 무한의 느낌이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의 느낌은 어떤가요? 만물(萬物)이라는 말의 느낌은 어떤가요? 만물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느낌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죠. 만은 모든 것이면서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오만(50,000)이라는 숫자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상(五萬相)'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오만상을 쓴다고 표현하는데 오만 가지 인상(人相)을 쓴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표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오만상은 좋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참 많기도 합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여러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별의별 생각에 괴로운 것이겠지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지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혀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생각도 참 많네요. 쓸데없는 걱정도 물려둡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오만상을 쓰게 됩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만들어 내는 오만 가지의 인상입니다. 종종은 꿈속에서도 오만상을 씁니다. 가엾게도 우리는 잘 때마저 인상을 쓰고 자고 있는 겁니다. '오만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리네요. 잔소리를 더 잘게 부수어 상대에게 던지는 걸까요? 소리의 날카로운 조각이 서로에게 날아가 상처를 줍니다.

저는 오만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인간의 감정과 괴로움을 만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이렇게 변한 감정은 우리에게 헤어내기 어려운 괴로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만 가지 감정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도 꺼내 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오만상 속에는 기쁘고 행복한 표정도 있습니다. 웃는 표정이 있습니다. 힘들수록 좋은 생각, 좋은 표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입꼬리를 올리고 웃어봅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모두에게 즐거움을 안겨준 <우리 함께>

마카로브 행사장을 찾아

(3면의 계속)

행사에는 주내 예술인만 참가할 뿐만 아니라 이미 5년째 국제적 무대로 발전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해마다 제주두루나눔 팀이 지속적으로 풍물과 탈춤 등으로 한민족의 흥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규호 제주두루나눔 단체 회장은 이번에도 빈 손으로 오지 않았다. 신나는 공연을 선사한 것은 물론 마카로브 박물관에 제주시장의 선물까지 전달했다.

13시부터 시작한 축제 프로그램은 10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등지의 22개 팀들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카자크춤, 러시아 민속춤과 민요, 한국 놀이와 타악기 공연, 북방소수민족 원주민 민속양상들의 공연 등이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준비한 무대만도 상당히 많았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과 학생들의 풍물 팀,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 그룹(단장 송 알리크)과 <아리랑> 할머니 무용단(단장 박영자), 강팔용 동포 가수 등이다. 또 이번에 주한인협회는 사할린주 씨름협회(회장 춘 알락세이)와 함께 마카로브에서 열린 사할린주 씨름 경기를

열었다.

그외 행사장에서는 활동교실, 체험장, 박람회 등이 펼쳐졌다. 이날 비는 거의 그치지 않았다. 이슬비가 가끔 큰 비로 변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변함없이 밝고 좋았다.

관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잘 한다", "난이 무대를 기다렸다", "훌륭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 등등의 말들로 필자의 기분도 역시 좋았다. 우리는 함께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응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코르사코브 한인회 대표단이 이 축제를 찾았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공연 출연자들과 함께 대형 버스 2대와 봉고차로 함께 움직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마카로브까지는 약 212킬로미터다. 우리는 함께하기에 왕복시간 6시간이 넘었어도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장거리를 갔다.

마카로브 시민들이 친절하게 해주어서 더욱 그랬다. 특히 따뜻하게 마중하는 마카로브 한인회(회장 고영순)에 모두들 고마워 했다. 행사 개최에 항상 한 몫을 담당하는 이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내년에도 개최될 축제가 벌써 기대된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Ей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банк принимает и обменивает только фрагменты банкнот, имеющие размер не меньше 80 процентов от оригинальной площади.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женщина тратила все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на то, чтобы склеить купюры. Ей помогли муж и дочь.

Банк принял собранные из мелких кусочков купюры и обменял их на новые. Упорство женщины восхитило ее начальника, в качестве поощрения он угостил ее обедом.

Рассказ женщины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по социальным сетям. Комментариев восхитила усидчивость и целеустремленность кореянки. «Эта женщина может расследовать дела в полиции, если ей удалось склеить эти банкноты. Мое уважение!» – написал один из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ахалин 주민의 절반이 자질 향상 위한 자금은 없다고 응답

<헤드 헌터>채용기업 분석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들이 자신의 전문적 기술 향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사할린 주민의 14%는 추가 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25%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재교육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 23%의 교통 분야 대표자들과 21%의 실무직원들은 재교육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놀랍게도 사할린 주민들이 재교육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로 53%가 자금 여유의 부족을 꼽았다. 주내 1/3의 주민들은 자기개발을 할 시간이 없다고 답하고, 15%의 주민은 교육과정과 실습을 무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평균적으로 주민 6명 중 1명이 자질향상의 교육과정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다. 주민의 98%는 장래에 자신의 실력을 높이 향상시키거나 전혀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그룹 중 54%는 일반 교육과정과 수업을 받을 계획이며, 46%는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고, 41%는 그룹 교육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 사할린 주민들의 자기개발에 투자할 자금을 대한 희망도 제각각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8%가 1년에 5만 루블을 예산하고 있고 이들 중 1/10이 마케팅 분야의 대표와 최고 경영자다. 주민의 17%는 연간 1만 - 2만 루블을 예산하고 있고, 16%는 1만 루블 이하로 생각하고 있으며 12%는 무료 재교육을 원하고 있다. 조사된 주민의 절반 이상이 그들의 재교육에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29%는 고용주 측과 각각 절반씩 부담, 3%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68%의 주민 대부분이 승진을 위한 자질향상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후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동의했다. 6%는 동료 직원의 존경심,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헤드 헌터>가 전했다.

У половины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нет денег на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Аналитики рекрутинговой корпорации HeadHunter выяснили, как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носятся к повышению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валификаци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около 14% островитян ни разу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ого возраста — таких около 25%. Кроме того, не считают нужным тратить время на такие вещ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феры транспорта (23%) и рабочий персонал (21%).

Как ни странно, основная причина отказа сахалинцев о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 недостаток свободных средств (53%). У трет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ет времени на саморазвитие. Еще 15% считают курсы и тренинги бесполезными — в среднем каждый шестой сахалинец назвал это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отказа от курсов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и этом подавляющее число граждан — 98% — заявили о том, что в будущем хотят серьезно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и умения, а то и вовсе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профессию. Из этой группы 54% планируют учиться на обычных курсах и занятиях, 46% склоняются к интернет-тренингам, 41% не против работать в групповых тренингах.

Желание вкладывать деньги в самообразование у сахалинцев также различается. Около 8% соискателей не против тратить на эт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год, каждый десятый из них —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феры маркетинга или топ-менеджер. Еще 17%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выделить от 10 до 20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годно. Около 16% не готовы расставаться с суммой крупнее 10 тысяч рублей, а 12% вообще хотят учиться бесплатно. Чуть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опрошен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рассчитывают, что их занятия оплатит работодатель. Около 29% считают, что расходы нужно делить пополам, а еще 3% уверены, что руководитель не обязан тратить на такие вещи.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островитян готовы пройти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ди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 таких в регионе 68%. Примерно столько же граждан согласны потратить время, если потом им повысят зарплату. А ради уважения коллег и начальства учиться и переучиваться готовы лишь шесть процентов соискателей.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HeadHunter.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제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 <빛의 놀이> 사할린에서 개최

2019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제 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 <빛의 놀이>가 개최된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청소년 영화제의 국제적 경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79개의 단편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경연에 출품된 영상 작품들은 모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제작한 작품들이다.

장르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만화영화, 동영상/음악동영상 4개 부문으로 분류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는데, 청소년 심사위원단과 영화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다.

경쟁 프로그램에 미국, 인도, 중국, 프랑스 등 8개국과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잔, 니즈니-노브고로드 등 러시아 11개 지역에서 참가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사할린주 지역들에서는 이번 경연에 21개의 영상 작품들이 출품되어 타 국가 및 타 지역들과 함께 평가 받게 된다.

(영화제 사무국 홍보자료에서)



eda.sakh.com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